한지 조형예술의 미학

한약방 약재 봉지서 영감…한지 유닛, 그 치유의 힘

문소영 기자 symoon@joongang.co.kr

전광영, 6년 만의 국내 개인전 '집적'

고서 한지로 감싼 유닛, 붙이고 쌓아

베니스비엔날레 출품작도 선보여

"주력 색채는 무채색, 컬러는 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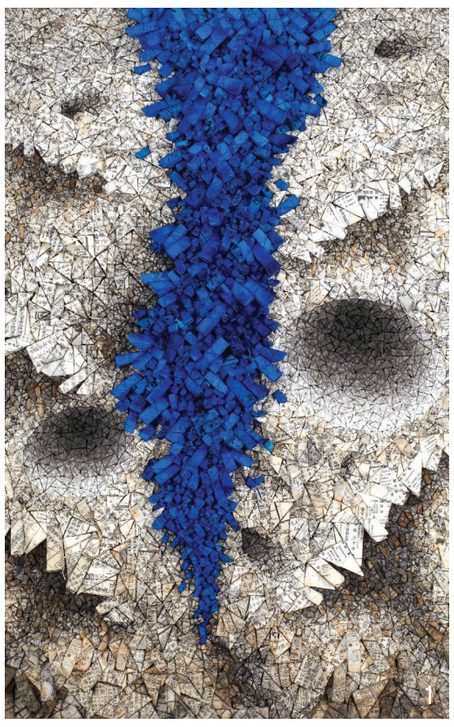
한지 외 새로운 재료, 아직은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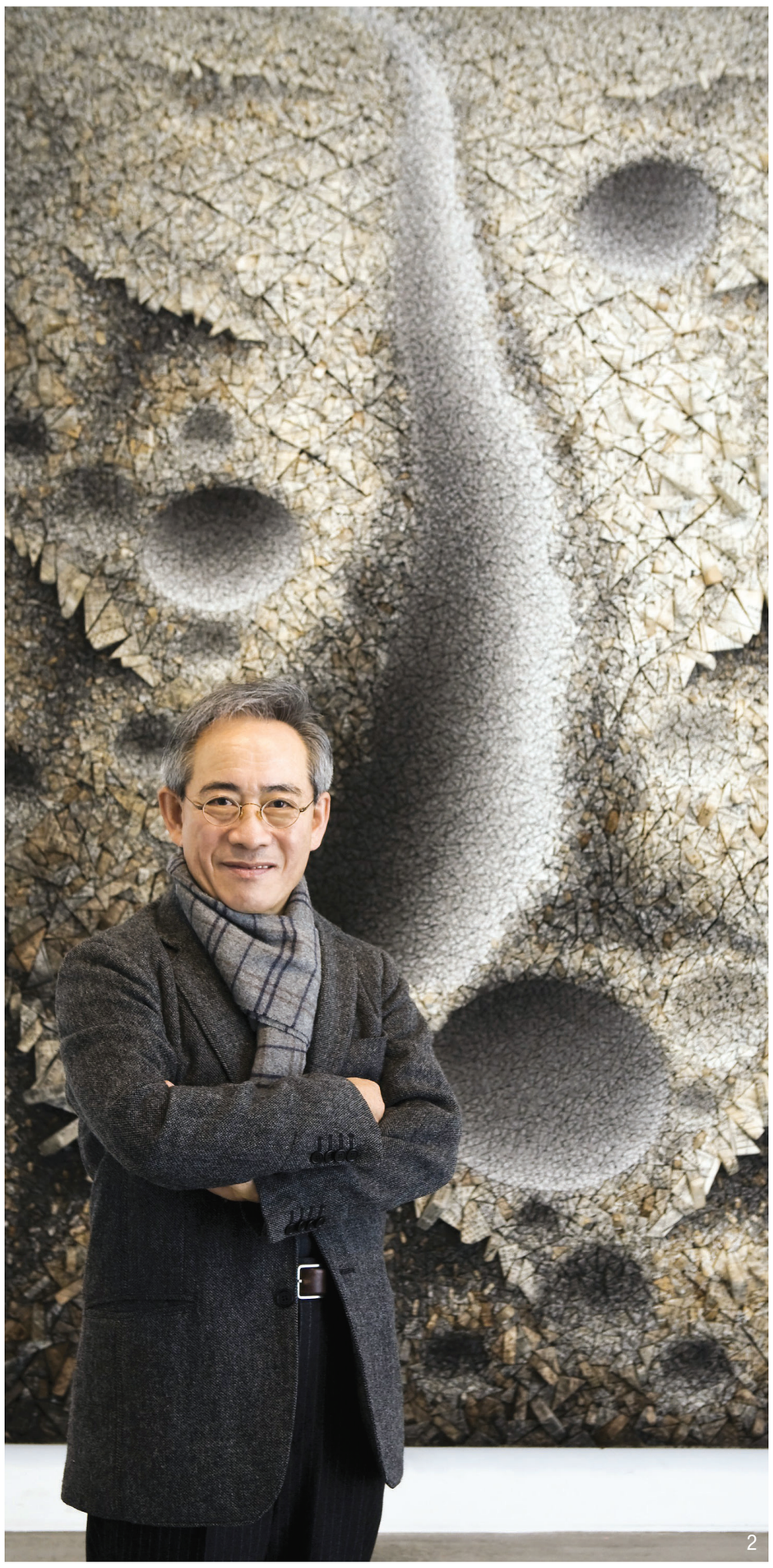
'한지 작가'. 현대미술가 전광영(80)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그러나 '한지'라는 단어로 연상되는 전통미·온화함 등은 그의 작품세계와 거리가 멀다. 고서(古書) 한지로 감싼 크고 작은 삼각형 유닛을 수없이 붙이고 쌓아서, 즉 작가의 연작 제목대로 '집적'해서 무채색의 거대한 벽걸이 작품이나 입체 설치 작품을 만드는데, 그 완성된 모습이 장엄하고 황량하다. 그런 면모를 그의 6년만의 국내 개인전 'Aggregations: Resonance, In-between (집적: 울림, 중간적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전시가 열리는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 가면 먼저 추락한 거대 운석 덩어리 같은 작품이 눈에 띈다. 2022년 10만 관중을 모은 베니스비엔날레 공식 병행전시에 출품되었던 설치 작품이다. 그 너머로 눈길을 끄는 벽걸이 신작이 있다. 삼각형 한지 유닛이 모여 울퉁불퉁하고 균열 가득하고 군데군데 움푹 파인 메마른 지표면을 형성한 가운데 청량한 짙푸른색 한지 유닛들이 물줄기처럼 스며들어 있는 작품이다. 작가의 '집적' 연작 중에 처음 공개되는 스타일이다.

"이 작품은 치유에 대한 것"이라고 작가는 지난 3일 중앙SUNDAY와 만나 밝혔다. 그의 무채색 '집적' 연작은 "마치 몇 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땅이 갈라진 것 같은 모습이고 군데군데 패인 구덩이가 불안감을 주는데 이것은 상처 받고 갈라진 인간 내면의 대지 풍경이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치유의 물이 흘러드는 것이 신작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요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자연과 치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렇다고 작가가 색채를 사용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10년대부터 전통 자연염색 기법으로 물들여진 한지 삼각형 유닛을 집적한 화사한 벽걸이 작품을 만들어 왔으며 이 전시에도 6점이 나와 있다. 외국 잡지에서 소개되는 아트 컬렉터들의 인테리어에서 종종 목격되는 그의 작품은 대개 이런 색채 작업이다. "나이를 먹으니 컬러가 좋아진다는 식으로 농담도 하는데, 솔직히 대중에게 다가가기 좋은 작품이라서 한다"고 작가는 밝혔다. "내가 죽는 날까지 주력할 작업은 무채색 작업이고 컬러 작업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일종의 들러리로 같이 갈 것입니다."





1, 2 전광영의 '한지작품' Aggregation24-FE011. 3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개막한 전광영의 개인전 'Aggregations: Resonance, In-between (집적: 울림, 중간적인)'. [사진 가나아트센터]

작가가 자연염색을 통해 세련되게 색채 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유학 시절의 경험 덕분이다. 학비를 벌기 위해 직물 염색 공장에서 일하면서 다채로운 색감에 눈뜨게 된 것이다. 강원도 홍천 출신인 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법대에 진학하라는 부친의 말을 따르지 않고 홍익대 미대에 진학하는 바람에 집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과외 등으로 학비를 벌며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후, 1960년대 말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대학 대학원으로 유학까지 감행했다. 그는 여기에서 미국 추상표현주의 회화로부터 큰 영감을 받았다. 그가 추상표현주의 회화에 매진했던 80년대의 그림 3점도 이번 전시에 나와 있다.

작가는 "이 작품들은 내가 잘 공개하지도 팔지도 않는다"며 "나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상표현주의의 시각적 언어는 서구 모더니즘에서 차용한 것이니 한국인으로서 더 독창적인 작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는 한국에 돌아와 전국의 민속박물관들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 홍천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큰할아버지가 경영하는 한약방에 약재 이름이 먹으로 적힌 미색 한지 봉지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풍경이었다. 마침내 그는 90년대 중반부터 삼각 스티로폼 조각을 한지로 싸서 끈으로 동여맨 유닛을 구성해, 회화도 조각도 아닌 새로운 작업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2층 전시장에는 베니스비엔날레에 설치되었던 대형 설치 작품 3점과 벽걸이 작품들이 새로운 미디어아트와 함께 두 개의 방에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각 방은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지 유닛들이 높이 3m 원기둥 5개를 집적한 작품은 주변에 흩어진 유닛들로 인해 기둥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느낌을 준다. 그 옆에 역시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는 느낌의 유기적 형태의 거대한 설치 작품이 있다. 그 위로 천천히 '쿵쿵' 하는 소리가 울린다.

작가는 말했다. "이건 임종에 가까워진 실제 환자의 느리고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 소리를 녹음한 것이고 이 설치는 병든 심장의 형상입니다. 이 불안한 심장 소리가 바로 우리 인류의 심장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기둥들은 이제 그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 서구 열강의 문명 제도 등입니다. 하지만 그냥 혼란과 불안으로 두고 싶지 않아서 저쪽에 희망과 열정을 나타내는 빨간 벽걸이 작품을 걸었습니다."

그는 고서를 작품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골동품이 아니라 버려지듯 헐값에 팔리는 책들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을 이용하고 있다"며 "권당 500원이던 시절에 4만여 권의 책을 사두고 15000권을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은 책들은 보관 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요즘 제게 고서를 팔러 오는 사람들은 권당 최소 5만원을 부르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재료에 있어서도 새로운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비밀입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since 1982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